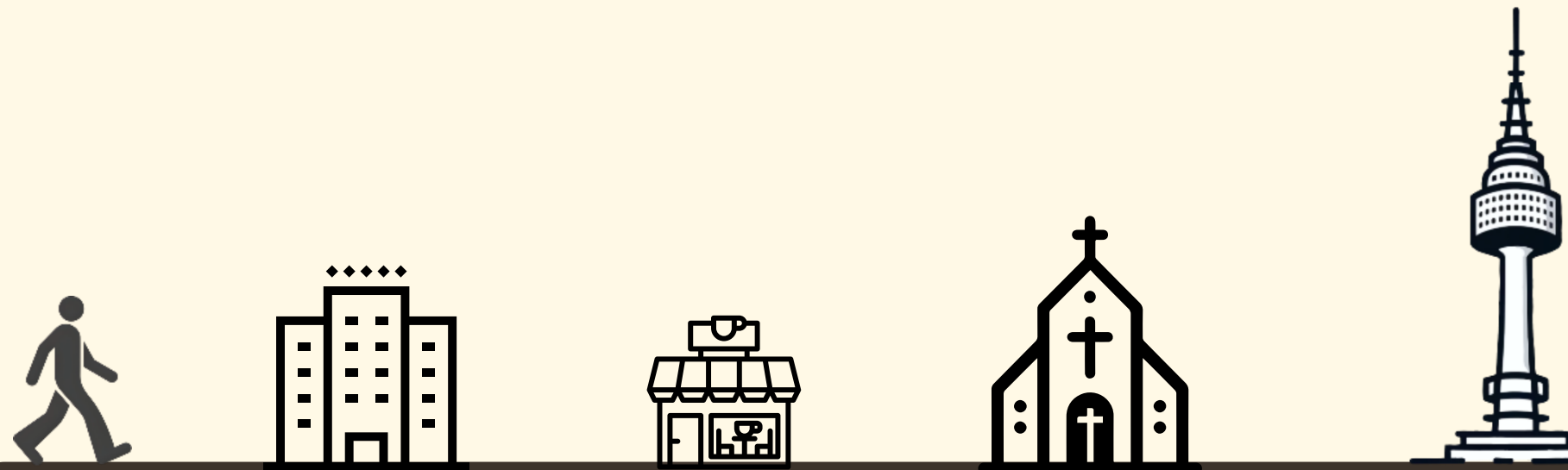


그리운 이름 따라-명동 20년



이봉구, 1966作

서문



월탄 박종화(1901~1981)

1945년 8·15로부터, 1953년 환도 시절까지 서울 명동은 새로 광복된 **대한민국의 문화촌**이었다. 지금은 한국의 제일가는 고혹의 시가요 은성한 상점의 거리지만 당시엔 **신문사·잡지사 문총** 등이 이곳에 집결되어 있고, 주머니 가벼운 문인들의 다리를 쉴 만한 **조출한 다방과 값싼 막걸리집**이 많았다.

문인 예술가들은 항상 이곳에서 기업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문학과 새로운 음악, 새로운 미술 새로운 연극을 구상했던 것이다.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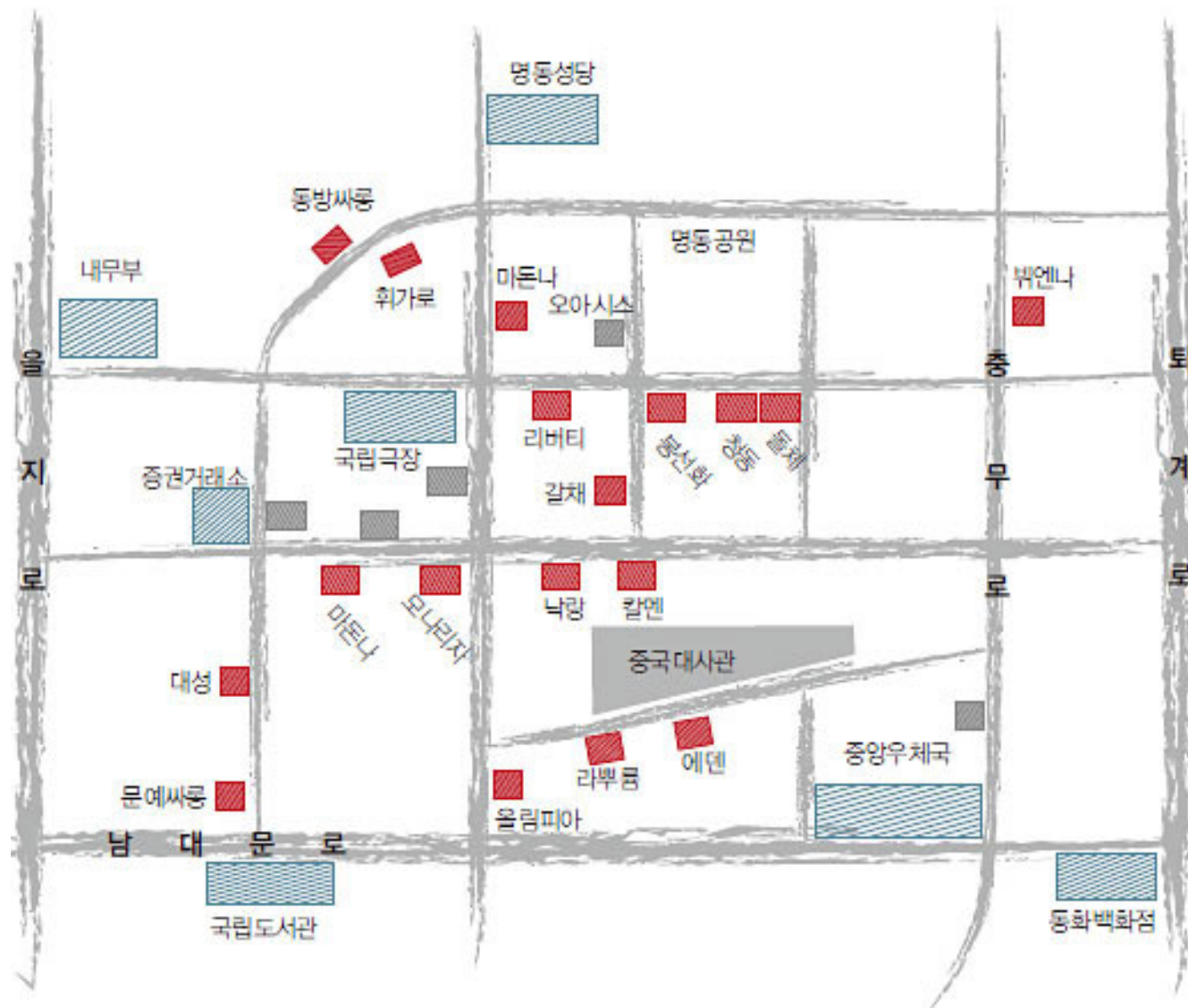
월탄 박종화(1901~1981)

당시 **이봉구 형**은 언제나 명동 카페나 주점에 앉아서 모든 문인 예술가와 단란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만길 기염을 압전하게 토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에게 **명동시장의 호칭**을 보냈던 것이다.

이제 지난날 명동시장이 그의 치내에 있었던 명동 20년사를 친히 썼으니 다시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명동사**가 될 것이다.

여기 **문인 예술가 남녀노소의 기기괴괴 호족무류한 별별 기록**이 다 나타났을 것이다. 한 시대 **문인 예술가들의 호쾌한 측면사**가 될 줄 안다.

1950년대 명동 다방지도 주간조선 2231호



1945~1960년대 명동 다방 지도 (주간조선 2012.11.12 (통권 2231호) 기사)

회가로 다방에 영화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모였어. 게 뭐, 홍성기 감독도 그때 거기에서도 다 저거했고, 박종호 그, 조감독 했지. 이런 분들.

그때 나는 뭐 주로 회가로다방하고 동방싸롱. 동방싸롱은 연극하는 분들이 많이. 이해랑 씨를 비롯해서 이진순 씨 이런 분들이 김동원, 하여튼 연극하는 분들이 동방싸롱에 주로 하고. 이쪽 그 회가로는, 건너편 회가로는 영화하는 사람들. 영화 그계. 회가로는 그때 당시에 쟁쟁한 사람이 전택이. 전택이 감독. 나중에 감동했죠, 전택이. 전택이가 그때 제일 왕초였지 뭐. 노경희... 부부 아니에요? 노경희하고. 게서 거기 감독들도 오고 촬영하는 김학성 씨도 오고. 정일성 씨도 오고.

영화 평론가 노만이 기억하는 명동

잡지 일로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 명동의 다방이었다. 시인, 소설가, 화가, 작곡가, 영화감독 등, 당대 문화예술인이 모두 모인 곳이었다. 다방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은 가루 커피에 '카네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연유를 듬뿍 넣어 준 커피가 나왔다. 아침이면 쌍화탕이나 계란 노른자를 얹어서 준 '모닝커피'가 나오기도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명동은 북적거렸다. 전쟁 직후였으니, 명동성당 첨탑만이 우뚝 솟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폐허나 다름 없었다. (중략) 동방싸롱은 주로 연극인들의 아지틀였다. 이해랑, 이진순 선생과 배우 김동원을 그곳에서 만났다. 특히 이해랑 선생은 우리 영화인들 보고 "이 활동사진쟁이들!"하고 불렀다. '활동사진'이라니, '연극'보다 좀 아래로 봤던 건지(웃음). 하여튼 선생의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 박인환, 소설가 이봉구 선생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박인환 선생은 항상 통 있는 바바리코트 차림을 한 '멋쟁이'였지 않나. 그는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영화평론을 자주 쓰기도 했다.

영화 평론가 노만이 기억하는 명동, 노만 구술채록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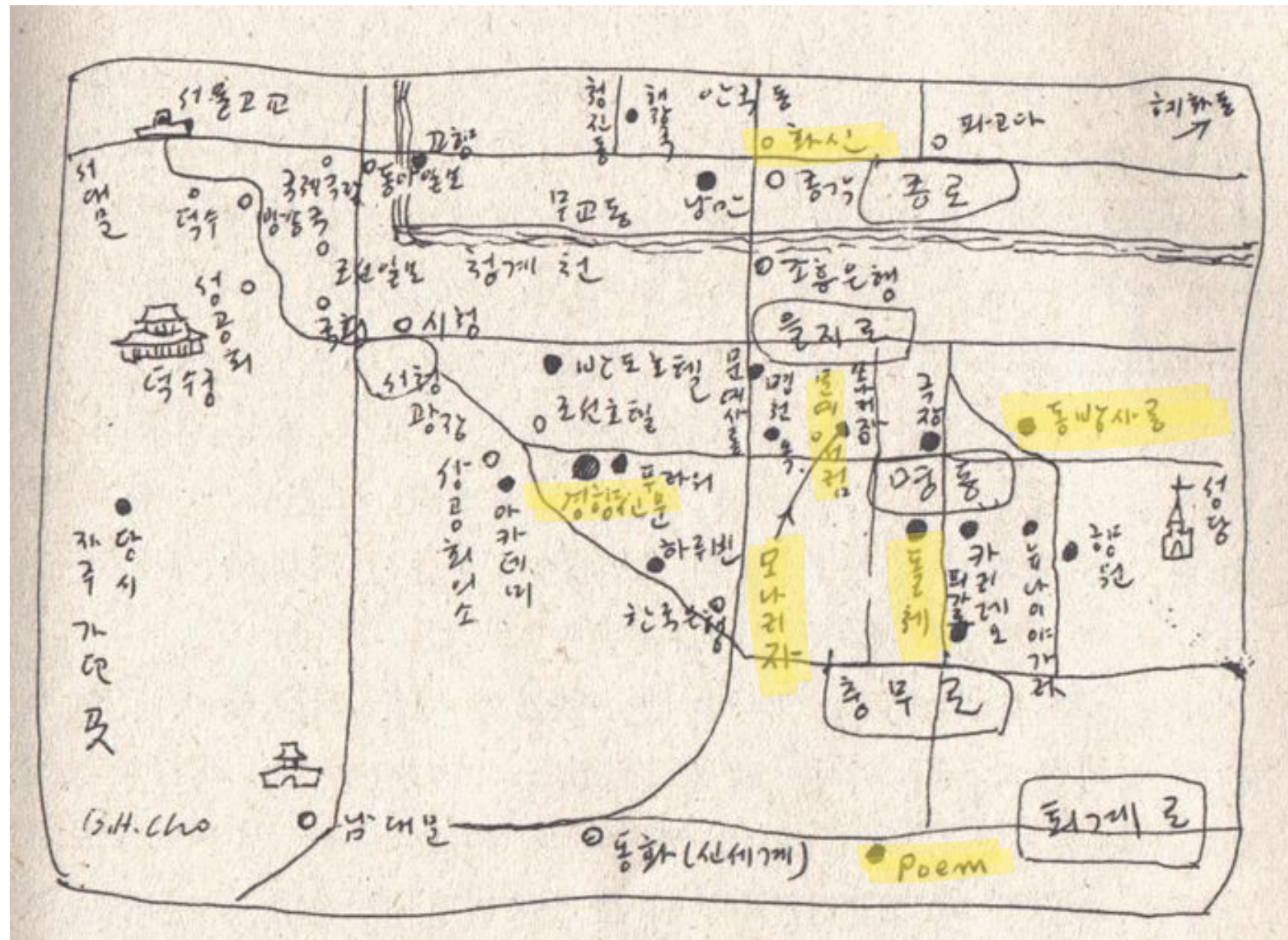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어울렸지. 어울려서. 게 막걸리 집 갔는데, 그, 포엠마담이라고 또 유명했어요. 그게 이제 **최불암 씨 어머니가 하는, 그 뭐지? 이름... 거기하고 포엠마담하고가 그 쌍병을 이뤄서 유명했는데. 포엠마담은 미술하는 분들이 많이 갔고, 이쪽에는 소설 쓰는 분들이 많이 갔고, 최불암 씨 어머니가 하는 거는.** 난 양쪽에 다 다녔는데, 거기 이봉구 선생이 주로 거기에 '명동백작'이라고 그랬지.

또 『나목』 쓴 누구지?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봉구 선생은 정말 명동백작이니까 뭐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항상 계셨어.

내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책을 내니까 "야, 이거 내가 써야 되는 건데 당신이 썼어"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1950년대 명동 다방지도 조병화, 국립현대미술관



명동 20년_목차



다방 '봉선화'

1950년 봄

'동방 샤롱' 시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병든 서울

폐허의 달

세월이 가면-박인환

'알핀-바이오렐'-전혜린

오랑캐꽃과 남궁연

남성관 마담

달도 하나 해도 하나

휘나레

흑인의 친구 배인환

잡초

김인수와 강창원

고원단장

청춘무성

'모나리자'의 실종

금간 사람들

명동 에레지

낙랑·휘가로·미락 부근

포엠

술잔 속의 수주 선생

속명동 에레지

명동장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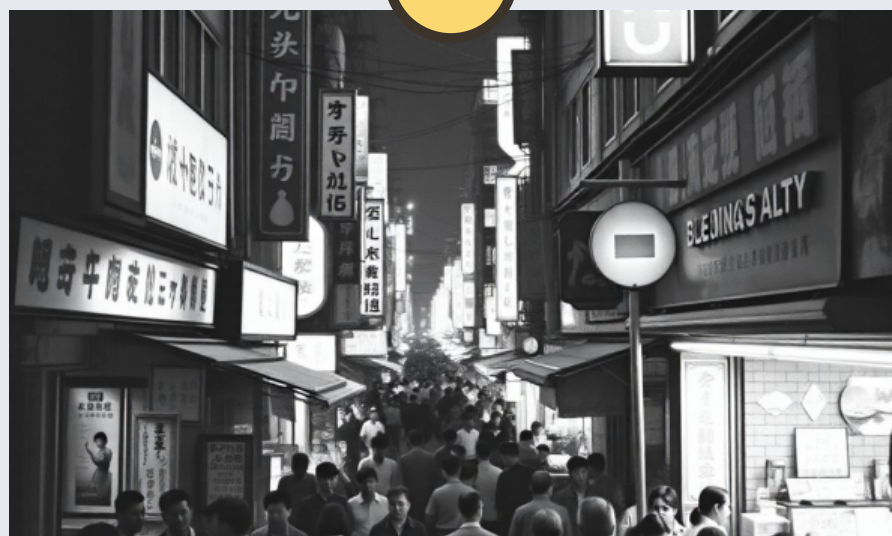
'야래향'

밤의 '은성'



공간으로 읽는 명동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생기고 사라지다

경관, 개별적인 동시에
공동의 맥락을 통해 경험
장소들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그 당시 나의 삶의 모습
정확한 특징<<<분위기



모이고 헤어지다

집단의 장소 정체성
이해 관계가 지식이 다른 집단과
공동체에게는 장소의 정체성에도 상이

공간과 공간 사이 '거리'



명동의 장소감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다방, 주점, 극장, 음식점, 서점
신문사, 목욕탕, 악기점, 개인의 집
....

머무르고, 떠나가고, 돌아오는
사람들

다방 봉선화



예나 지금이나 **다방의 생명은 다방 이름과 분위기가 좌우했다.** 이름만 좋아서도 안 되고 실내 장치, 커피 맛 마담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교양이 서로 조화된 분위기가 있어야만 명동 거리의 다방은 제구실을 할 수가 있었다.(7면)

하루가 한두 번씩은 반드시 '봉선화'에 들러 차를 들고 음악을 듣기는 했으나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모두가 바쁜 걸음이었다. (12면)



리버티(티룸)

그런가 하면 상해 중경 만주에서 돌아온 동포들이 이 집을 찾아들었다. 이 집 주인과 기분이 통해서 인지 어느 날이고 보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 속에서 **자칭 항일 투사 광복군 망명객 또 장사꾼 형형 색색이었다.** 그러면서도 종로 거리의 정치적 색채와는 달리 문화적 색채가 농후한 게 특색이었다.

(16~17면)

공간으로 읽는 명동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팔·일오의 감격은 누구에게도 눈물이 나도록 신명 나고 벅찬 것이지만 이것을 글로 솔직히 표현해서 올린 것이 오장환의 <병든 서울>이었다. 명동 거리 술집에선 이 <병든 서울>이 누구의 입에서고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노래요, 벅찬 감동의 울부짐이었다.

인물로 읽는 명동



이봉구의 기억에 따른 일화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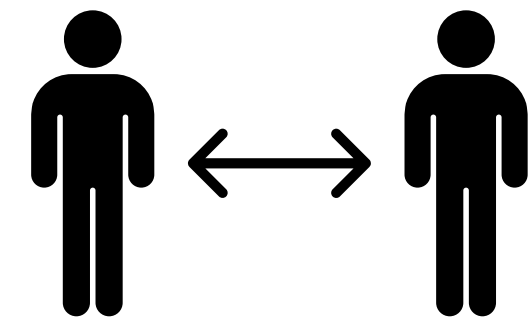
무질서가 만들어내는 질서

인물의 서술 비중/이봉구와의 인물의 거리

화자의 성격, 기호, 취향, 시야에 따른 불균형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공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



나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온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보드테르는 말하였다.
또 누구는 말하기를 술의 중량과 싸우는 것은 인생의 중량과 싸우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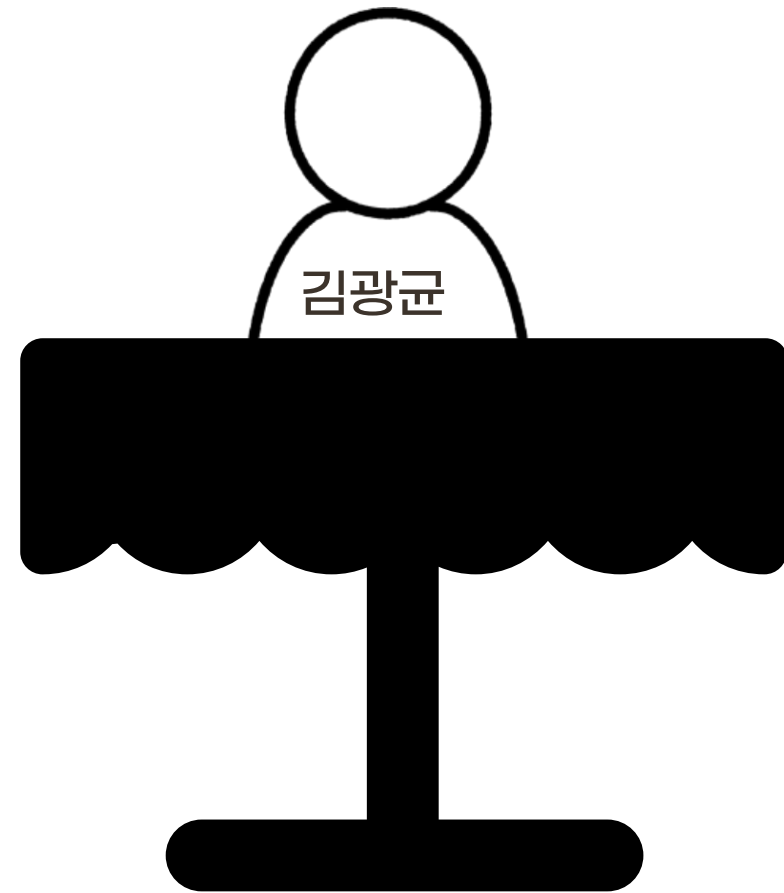
인물로 읽는 명동

배인철 피살 사건

모—정. 華統亂時
 詩人 裴仁哲氏 被殺
 去年十一月 日 六 時 半 頃
 在 南山中腹 에서 부근을
 산재중이든 詩人 裴仁哲
 (一一八)씨와 女大文科
 二년생 金順敬(一一二)에
 대하여 뒤루부터 모—정
 裴仁哲 三발을 발사하여
 裴仁哲씨는 주루루 관동
 傷을 입고 현장에서 죽자
 하고 金順敬은 왼쪽 부
 에 관동상을 입고 忠武路
 路가 모병원에 입원가로
 중인 데 경찰에서는 피해
 자의 불명이 그대로 현장
 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강도

헤어진 흑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같이 조용히 비 내리는 밤이면 그대들의 이름이 한 절의 서정시 한 방울 비 한 방울은 그대들의 이름을 먼 나라로 싣고 온 한 절의 노래'라고 말한 배인철이 해방된 지 이 년만인 일천구백사십칠년 초여름 어느 날 오후 남산에서 정체모를 괴한에게 총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다방의 장소감을 구성하는 사물들_봉선화



라스트 트레인
오장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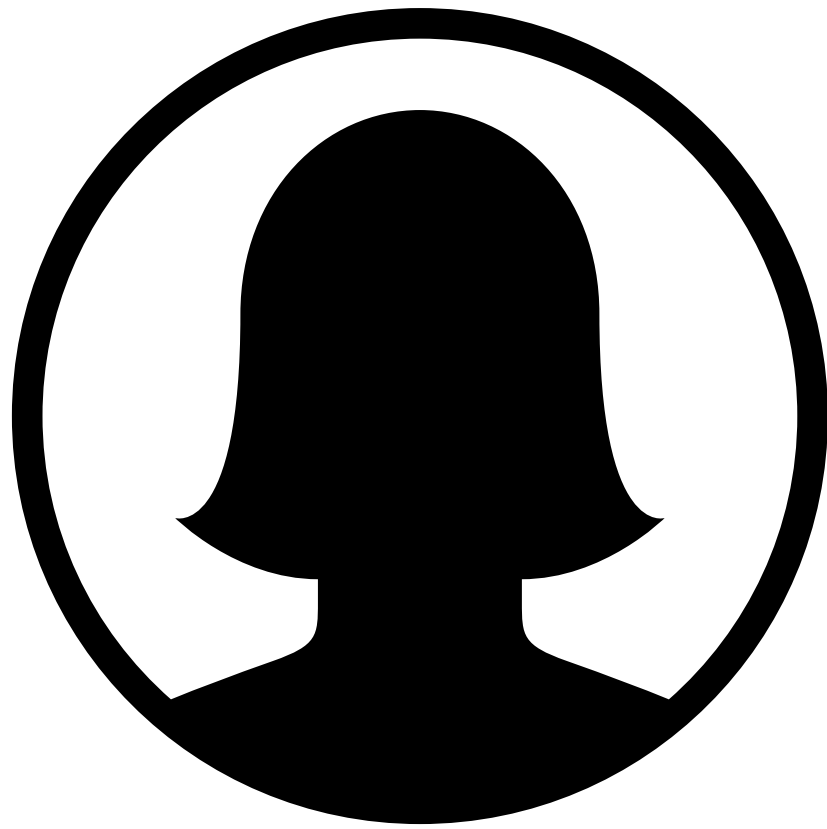
저무는 역두에서
너를 보냈다
비아(悲哀)야!





명동에 머무는 사람들

다방 봉선화



저요, 고향인 황해도 해주에 가 있다가 팔월 그믐께 서울로 왔어요.

울 밑에선 봉선화 너무 처량하지요. 하지만 해방된 명동 거리에 봉선화가 보구 싶어서 저는 저대로 붙인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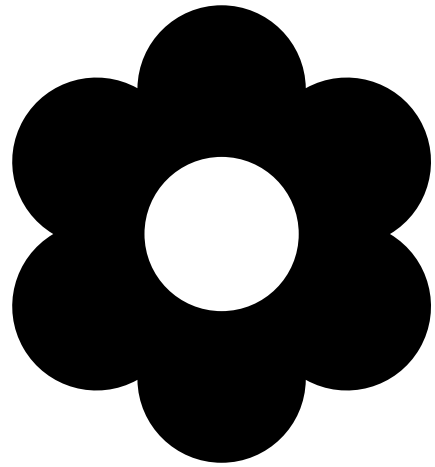
길고 긴 여름날에, 또 무너진 흙담 앞에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봉선화를 잊을 수가 없어서요. 이걸 소녀적인 센치가 아니예요.

저는 일정 때 그분의 시를 좋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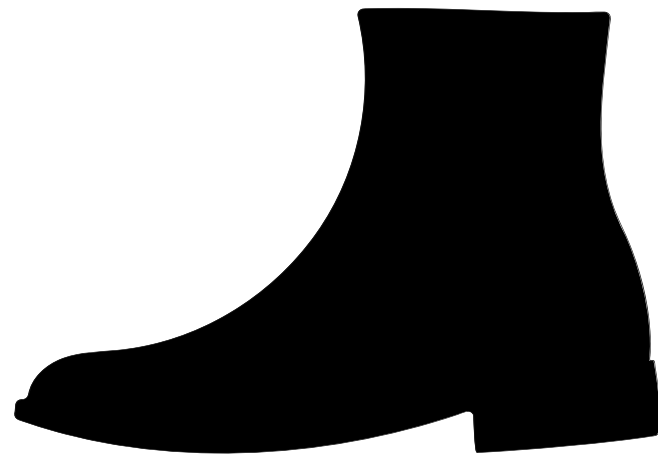
왜 저 저무는 역두에서 너를 보냈다고 시작되는 시 있잖아요.

(오장환_라스트 트레인)

길거리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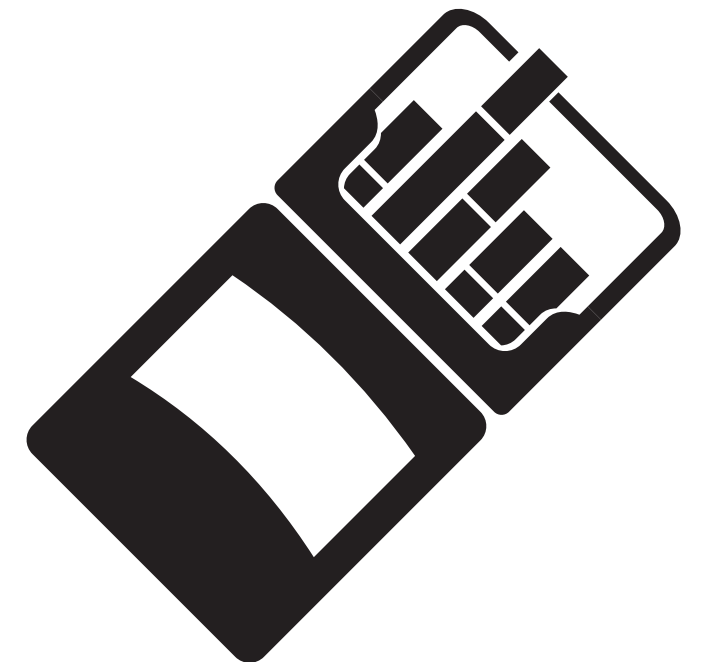


네, 저는 아줌마가 제일 좋아요.
장삿속이 아니고 진정이에요.
그 꽃은 아줌마 애인에게 드리세요.
아줌마 같은 분에게 애인이 없을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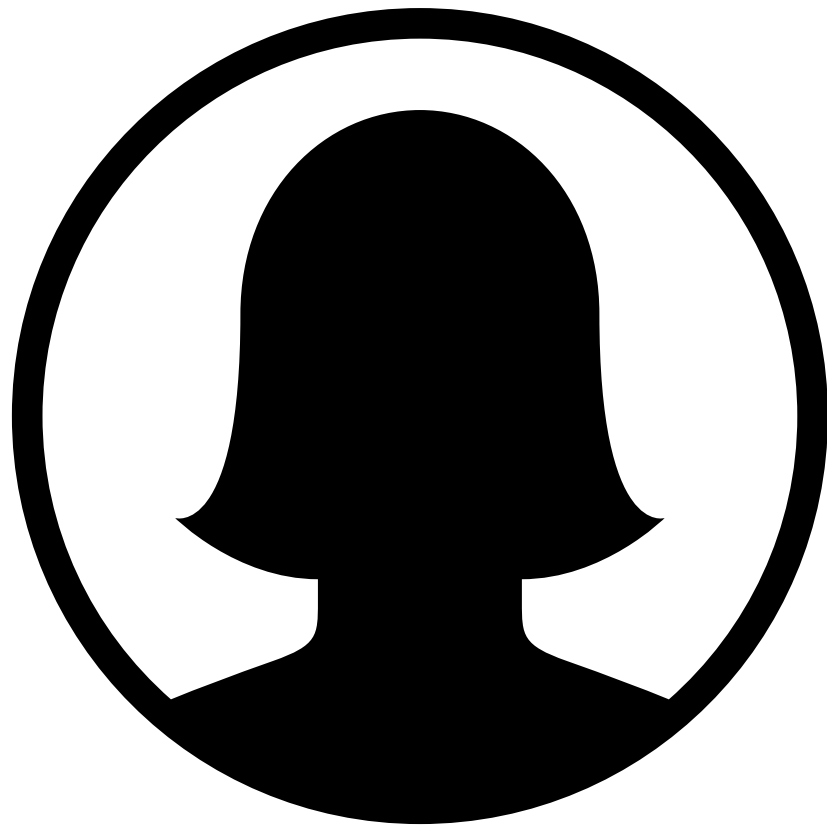


매일 닦으셔야지요. 젊은 멋쟁이 아저씨인데, 구두가 번쩍 거려야지요.
요전 날 그 색시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빨간 마후라는 애인이 해 준 거지요. 그렇지요
아저씨, '다이아 짬' 고약 하나 사세요

아저씨 담배 한 껍 팔아주세요.
'럭키', '카멜', '모리스', '체스터', '팔몰'
모든지 입맛 도는 대로 팔아 주세요



낙랑 주인_김연실



젊어서부터 고생이 많았으니까 쉬 주름이 잡히는 거지요. 해방이 되었으니 한번 젊어 보고 일도 하여야겠는데

잘 있어요. 이젠 어른이 됐어요. 다 여러분이 걱정해주신 덕이에요. 우리 남매는 어릴 때부터 눈물 속에 살았으니까. 나는 단 하나의 남동생 학성이를 의지하고 그의 성공을 빌며 살아왔어요

남성관_황마담

고등학교 출신인 이 집 주인인 황 마담은 머리 좋고 인물 이 고와서 손님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에 실패 하고 친정집에 와서 두 아이를 데리고 빈대떡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다는 것이다.

대청마루 건넌방 봉당 그리고 부엌을 지나 뒷방에까지 손님이 넘치어도 메모 한 장 없이 부엌문 앞에 서서 머리로 계산을 하여 소리를 질러 가며 일일이 책상 앞에 앉아 기입하는 사람 이상으로 하나 틀림없이 술값을 계산해 받는 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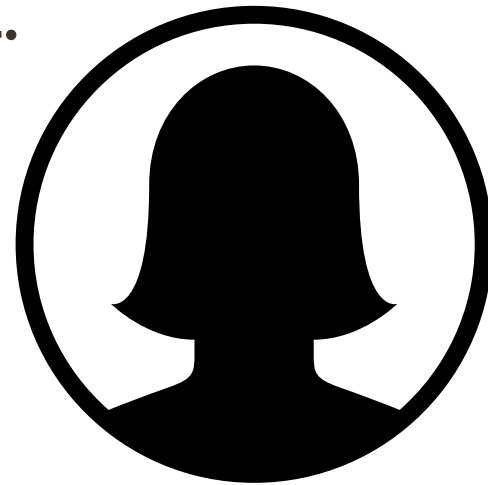
당목 적삼에 남치마로 맨발에 흰 고무신을 신고, 번철 앞에서 빈대떡을 부치면서도 한 손엔 어느 때고 책이 들려 있었다. 검은 눈동자 그 언저리에 서리인 싸늘한 애수, 깔끔한 마음씨에 부드러운 말소리와 웃음소리는 조심스레 정이 가게 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다.

'폐허의 달'같은 '남성관' 마담은 이 집에서 환도 후엔 돈을 벌러 앞에 있는 다방까지 사고 하더니, 얼마 후에 '남성관'과 다방은 팔아 버리고 집에 들어앉았다는 소문이, 또는 정을 통하는 사람이 있어 집에도 없다는 별의별 소문이 명동 거리에 떠돌았으나, 아무도 정확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몸이 약한 사람이니까 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 것이나 아닐까-

모나리자 홍마담

선생님 이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도(還都)도 되고 사람도 시끄럽고 좀 쉬겠어요.

그 손님이 밤낮 혼자서 멍하니 진종일 앉아 있더니
우리집 손님들이 잘되어야 할텐데



칠팔 년 동안 또 일사 후퇴 이후, 다시 환도 후까지 음
약을 걸고 차를 끓여 나오던 젊은 홍 마담이 아무 미련
이 없이 가볍게도 떠나 버렸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애인을 따라 다방을 팔아버리고 사라졌다는 것
이다.

우리 집 손님의 반은 '금붕어'로 갔어요

돌체 마담

육/이오 때 타 버린 그 옛터에 집을 세우고 이층에다 명곡 감상실 '돌체'를 내고 피난 때 부산에서 신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뒤를 이어 어린 아들 하나를 의지해 이 '돌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집이 다시 큰 건물로 옮겨 웅장한 '홀'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까지 이 '돌체'엔 어느 날 어느 때고 정영일 한웅 서석주가 살다시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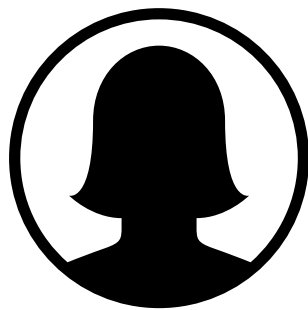


마담은 한동안 증권시장 주변에서 음악 대신 돈벌이에 떠돌고 있는 것을 지난날 '돌체' 단골들이 보고 서글픔에 외면을 하고 돌아섰던가-.

포엠 마담

어젯밤은 웬 낯선 손님이 오셔서 리베라 열한 잔을 마시고 나더니 문화인 예술가가 아니면 마담이 괘시를 한다니 그게 정말이냐, 그래 이 집은 예술가들만을 위해 문을 연 집이냐, 차별을 해서는 좋지 못하다고 마구 호통을 치잖아요.

싸롱 바람에 불려서 나왔지요, 요즘의 술은 무슨 술을!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요/정들어 속 썩고 장사는 절단이고 다 여러분들의 덕택이에요



너무 아름다워도 곤란해요/새 마담은 그 옛날 신극 무대에 나가 좋은 연기를 보여 준 여배우의 경력을 가진 여인이었다./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밤이면 술 냄새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포엠' 마담은 노랑 저고리에 자주 끝동, 초록색 아니면 자주 치마를 입고 포도알 같은 검고 깊은 눈동자에 투명한 목소리였다.

"선생님, 술은 못 하시면서도." '포엠' 마담은 담배 두 갑을 사다 오상순에게 선사한 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 정이 고마워서 인사를 올리면



빈대떡집 마담/문명악기점 주인



"뭐라고, 박인환이가 죽었다고! 뭐 정말,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어제 낮에도 왔다 갔는데." 꽃 피기 전에 외상 술값을 갚는다고 할 때 꽃 피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말한 그것이 뉘우쳐서 빈대떡집 점주 마담은 문 앞에 나와서 훌쩍이고 있지 않은가.

낙화암 낙화암 왜 말이 없느냐, 참 왜 말이 없는지 답답해서요.
우리 박용구 형이 생각나서

